다산포럼

다산을 위한 정조의 곡산부사 임명

김준혁
한신대학교 교수(한국사 전공)

'풍운지회'(風雲之會). 바람과 범이 만나고 구름과 용이 만나듯이, 밝은 임금과 어진 재상의 만남이니 참으로 귀한 만남이다. 다산 정약용 연구의 최고봉인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은 정조와 다산의 만남을 '풍운지회'라고 규정한다. 그만큼 다산과 정조의 만남은 운명이라 할 수 있다.

정조는 정약용을 나라를 이끌어갈 정승으로 만들고자 했다. 1795년(정조 19) 윤2월 혜경궁 홍씨 회갑연을 위한 화성 행차가 끝나고 한양으로 올라온 정조는 창덕궁 도착 다음 날 조정의 대소 신료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그 자리에서 이가환과 정약용을 불러 세운 후 채제공 다음에 이 두 사람을 정승으로 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의 정치 주역들을 소개하고 이들이 정승이 될 훈련을 시키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그동안 정조는 정약용을 자신의 옆에서 보좌하는 승지로 삼았다. 요즘으로 치면 청와대 비서실에 있는 비서관이나 수석의 역할을 맡긴 것이다. 그러나 정조는 정약용이 제대로 된 관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 고을의 수령을 경험해 봐야 하고, 이를 통해 국가 전체의 행정과 정국 운영을 해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었다. 그래서 정조는 당시 가장 문제가 심각한 지역에 정약용을 수령으로 보내기로 했다. 그곳은 바로 황해도 곡산도호부였고 이때는 1797년 윤6월이었다.

당시 황해도 곡산도호부는 전임 수령의 잘못으로 이계심이란 인물을 중심으로 민란(民亂)이 일어났다. 이계심이 백성들과 함께 온갖 나쁜 짓을 서슴지 않았던 곡산부사를 고을 밖으로 내쫓는 민란을 일으켰는데, 백성들이 얼마나 꼭꼭 숨겨 주는지 곡산부 관원들이 이계심을 체포할 수가 없었다. 조정에서도 제대로 된 보고를 받지 못해 이계심이 무조건 민란을 일으킨 것이라고만 여겨 역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조정에서는 도주한 이계심을 잡기 위해 훈련도감을 포함한 오군영의 군사들까지 파견했지만, 번번이 그를 잡는데 실패했다. 그랬던 이계심이 제 발로 곡산부내로 들어가는 정약용 앞에 나타났다. 정약용은 이계심을 포박하거나 목에 칼을 채우지 않고 관아로 데려가 갑자기 신관 수령의 부임 행차에 나타난 연유를 물었다.

이계심은 정약용에게 백성들의 고통을 낱낱이 적은 12조목을 건넸다. 거기에는 정약용 부임 직전 서리들이 포보포(砲保布, 포군에게 내는 군포) 대금으로 200전을 걷어야 하는데 백성들에게 무려 900전이나 걷어 빼돌린 사실이 적혀 있었다. 이에 백성들의 원성이 이어졌고 이계심이 우두머리가 돼 1000여 명을 모아 관아에 들어가 호소한 것인데, 오히려 죄인으로 몰려 고통을 당했던 것이다.

정약용은 여러 정황을 파악하고 곧바로 이계심에게 무죄 방면을 내렸다. 그러면서 "한 고을에 모름지기 너와 같은 사람이 있어 형벌이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만백성을 위해 그들의 원통함을 폈으니, 천금은 얻을 수 있을지언정 너와 같은 사람은 얻기가 어려운 일이다. 오늘 너를 무죄로 석방한다"고 말했다.

이계심의 무죄 석방 소식이 알려지자 백성들은 반겼지만, 조정에서는 수령의 권위를 붕괴시켰다고 그를 파직해야 한다는 정쟁까지 일었다. 하지만 현군인 정조가 정약용을 칭찬하면서 정쟁은 일단락됐다. 정조는 정약용이 수령으로서 해야 할 올바른 일을 했다고 칭찬해 주면서 국왕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 고을 수령들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결국, 이 일 이후 지방 고을 수령들이 더욱 책임감 있게 고을 행정에 충실할 수 있었다.

정약용 역시 이때의 일을 기반으로 '목민심서'와 '경세유표'를 쓸 수 있었다. 훗날 위당 정인보 선생은 정조와 정약용 두 사람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했다. "정조는 정약용이 있었기에 정조일 수 있었고, 정약용은 정조가 있었기에 정약용일 수 있었다."

지금 우리 사회도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위하고자 한다면 능력 있는 인사들을 과감히 발탁해 정약용처럼 직분에 맞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선택된 인재들은 더욱 노력해 과감한 판단과 올바른 결정으로 자신을 훈련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의 미래가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이야기

대인동에서

이정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

나 때는 말이야! 영어로 '라떼 이즈 홀스!'(Latte is a horse!) 좀 더 진솔하게 표현하자면 '나는 꼰대다!'와 동의어다. 오늘은 젊은 친구들에겐 미안하지만, 필자가 꼰대임을 이실직고하고 나의 청년 시절 추억이 살아 있는 대인동 이야기로 시작한다.

과거 광주의 중심이었던 금남로와 맞닿아 있는 대인동은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자주 들르는 곳이다. 90년대 초반까지 고속버스 터미널이 위치한 광주의 관문이었다.(필자의 기억엔 없지만 1922년부터 1969년까지 광주역도 대인동에 있었다고 한다.) 가난했던 대학 시절, 고향을 다녀오는 길에 대인동 버스터미널에 내리자마자 눈꼽만큼 밖에 안 되던 용돈을 탕진했던 곳이기도 하다. 물론 지금의 대인동은 화려했던 영광을 뒤로 한 채, 좁은 골목길과 퇴색한 건물이 산재한 전형적인 구도심의 모습이다. 그래서 더욱 아련하다.

옛 추억도 되새길 겸, 얼마 전에도 지인들과 대인동 맛집에서 식사 후, 뼛속까지 남도를 사랑하는 박성수 미래남도연구원장님의 제안에 따라 인근의 금호시민문화관(금호그룹 창업주 고 박인천 회장 생가)을 방문하였다. 고색창연한 고옥과 고즈넉한 정원, 예술 조각품들이 어우러져 삭막한 도심에서 여행객들이 피로를 풀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그런데 또 직업병이 도진다. 박인천 회장의 생가를 둘러보고 있자니 아름다운 고옥의 정취에 심취하는 것도 잠깐,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호남의 대표기업 금호그룹의 흥망성쇠가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간다.

금호그룹은 현재보다 과거가 더욱 찬란했다는 점에서 금호 본사가 소재했던 대인동과 닮아 있다.

금호는 박인천 회장이 1946년 '광주택시'로 창업한 이래 광주고속(현 금호고속)의 성공을 모태로 전기, 전자, 금융, 건설, 항공 등을 아우르는 재계 순위 10위권의 호남권 대표 기업으로 성장한다.

그러나 2006년 대우건설을 6조 4000억 원에, 2008년 대한통운을 4조 1000억 원에 공격적으로 인수하면서 재무 구조가 급격히 악화된다. 무리한 M&A가 낳은 '승자의 저주'에 빠진 것이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승승장구에 취해 성공의 뒤편에 도사리고 있던 리스크의 덫을 소홀히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

리스크 관리란 기본적으로 더 큰 수익을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옛날이야기 한 김에 아주 먼 옛날로 돌아가 보자. 위험을 뜻하는 '리스크(risk)'의 어원은 암초나 절벽을 뜻하는 그리스어 '리자'에서 유래한다.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이야기다. 트로이전쟁의 영웅 오디세우스가 귀향하는 도중에 스킬라와 카립디스라는 두 괴물이 살고 있는 절벽을 통과해야 했다. 스킬라는 머리가 여섯 개 달린 괴물로 지나가는 배의 선원을 잡아먹으며, 카립디스는 소용돌이로 지나가는 모든 것을 빨아들인다. 오디세우스는 두 위험 앞에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스킬라'를 선택해 6명의 선원을 희생하고 무사 귀환하게 된다.

이렇듯 리스크 관리는 보다 낮은 위험 또는 적은 수익을 추구함으로써 추후 우려되는 큰 희생을 막자는 것이다. 금호그룹은 공격적인 M&A로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희생을 치르게 된 것이다. 늦게나마 최근 아시아나 항공 매각에 나선 것은 이런 리스크 관리의 일환으로 이해된다. 호남의 자존심 금호가 부디 옛 영광을 회복하길 기도한다.

최근 우리 광주시민들도 리스크 관리에 실패하였다. 지난 몇 개월간 광주는 코로나19 청정 지역으로 인식됐었다. 시민들은 방심한 나머지 사회적 거리 두기가 느슨해졌다. 결과는 치명적이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오만한 광주시민들을 가만두지 않았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대인동 바로 옆에 위치한 금양오피스텔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광범위한 지역 감염이 현실화되고 말았다.

명심하고 또 명심하라! 기업 경영에서도, 주식 시장에서도, 감염병 환경에서도 잘나갈 때 조심하라. '리스크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기 고

나는 기억한다 지난 여름 네가 한 말을

최성훈
육군보병학교 교관

'타격은 일본 기업에'(打撃は日本企業に)

지난 6월 23일 일본 도쿄신문에 실린 서울 특파원의 칼럼 제목으로, 수출 규제 조치 이후 한일 양국 기업의 현 상황을 조명했다.

1년 전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주려고 시작했던 일본의 수출 규제가 오히려 일본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기술 독립'을 이루고, 한국인들의 불매 운동으로 닛산자동차와 유니클로 계열의 패션 브랜드 지유(GU)가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는 사태로 이어져 거꾸로 일본 기업이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것이 기사의 주요 내용이다.

이런 일본의 자기 반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5월 20일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고순도 불화수소로 세계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일본 기업의 2019년 회계연도 당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18% 감소했다고 밝히면서, "미중 무역 분쟁과 더불어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 규제가 오히려 한국 기업의 첨단 소재 국산화를 앞당겨 일본 기업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일본이 수출 규제를 강행할 때만 해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한국의 중요 수출 상품이라는 점에서 한국 경제의 가장 아픈 곳을 건드렸다는 평가와 함께 최악의 경우 한국의 반도체 생산 라인이 3개월 안에 멈출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행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일본은 한국의 급소를 제대로 공략했을까? 이로 인해 한국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을까?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조치 이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물론 자동차·기계금속·전기전자·기초화학 등 6개 산업군에서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와 기술 개발 바람이 거세게 일면서 '탈(脫)일본'을 통한 기술 독립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 기업들이 일본제를 선호했던 가장 큰 이유는 고품질에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했기 때문이었다. 불량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가의 가격이라도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일본제를 써왔던 것이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런 관행을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가 막아섰다. 우리 기업들은 이제 일본 제품을 위기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반도체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생산 공정의 일부에 국내 조달이 가능한 저순도 불화수소를 쓰기 시작했다. 이제 수출 규제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한번 대체된 재료는 다시 일본제를 쓸 수 없게 된 것이다.

일본에 의한 수출 규제는 아베 총리의 생각과는 달리 잠자고 있던 한국을 깨웠고,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를 통해 반도체 핵심 소재의 '탈일본'을 가속화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다. 실제로 일본 수출 규제 3대 소재 중 가장 큰 타격이 우려됐던 불화수소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일본산 수입액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89.4%나 줄었고, 수입 비중은 42.4%에서 9.5%로 줄었다.

특히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가 늘어나고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의 영향으로 자동차, 맥주 등 소비재 수입까지 줄면서 일본과의 교역에서 가장 큰 문제였던 무역 적자도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 지난해 대일 무역 적자는 191억 6300만 달러로 2004년 이후 16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무더위와 함께 수출 규제가 시작될 당시 국내에서 쏟아지던 말들을 떠올려 보자. '감정만 앞세운 불매 운동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본의 경제를 아직 한국이 감당할 수 없다'는 등의 표현에는 일본이 경제 전쟁을 선포했지만 어차피 우리는 안되니까 일본의 감정을 자극하지 말고 작은 이익이라도 가져와야 한다는 뜻이 숨어 있었다. 실리로 포장됐지만 항복해야 한다는 말이나 다름 없었다.

그러나 항상 그래왔듯이 위기 극복의 순간에는 수많은 우리들이 있었다. IMF 위기 때에는 장롱에 넣어둔 금을 꺼내 놓은 우리가, 수출 규제에는 자발적인 불매 운동으로 대응한 우리가 있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위험에 처해 있을 때는 K-방역이라는 세계의 표준을 만들어 낸 우리가 있었다.

우리는 1년 전 누가 이런 말들을 했는지 기억해 두어야 한다. 미래에 또 다른 위기가 우리에게 닥칠 때, 그들의 말대로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社 說

방역 혼선 부르는 허위 진술 엄정 대응을

코로나19 확진자들의 잇단 허위 진술로 인해 광주시의 방역 시스템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 재확산 이후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속출하고 있는데도 일부 몰지각한 확진자들이 접촉자나 이동 동선을 숨기면서 새로운 감염원을 만드는 주범이 되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달 초 양성 판정을 받은 76번 확진자(금양오피스텔 관련)의 경우 전남대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배드민턴 클럽 대항 경기에 참석한 뒤 접촉자 등 열 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방역 당국에 경기 참석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당국은 76번 확진자가 수차례 방문한 스포츠센터 주변 방역만 실시한 채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는 별도로 하지 않았다. 그가 한사코 '스포츠센터 주변 벤치에만 있었다'는 식으로 진술했기 때문이다.

이후 지난 8일 확진된 137번 확진자 동선에서 전남대 스포츠센터가 나오면서 심층 조사를 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지난 9일 76번 확진자와 그의 접촉자들을 잇따라 찾아냈다. 이들 신규 확진자들은 이처럼 역학조사에 공백이 생긴 1주일 동안 사우나와 대학병원을 방문하고 상점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광주 37번 확진자도 역학조사 초기 거짓 진술로 일관했다가 경찰에 고발됐다. 그는 광주에서 2차 유행이 시작된 지난달 27일 이후 첫 확진 판정을 받은 34번과 함께 한방병원을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지만, 집단 감염지가 된 금양오피스텔과 대전 방문 사실 등을 철저히 숨겼다. 이로 인해 금양오피스텔 관련자에 대한 조사가 늦어지면서 추가 감염이 확산됐다.

이처럼 고의적인 사실 누락이나 은폐로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방역 당국의 노력을 무력화하고, 감염병 차단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는 불법 행위다. 이들이 허위 진술만 하지 않았다면 대규모 확진 사태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방역 당국은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거짓 진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서야 한다.

서남권 도약 위해 우선 목포·신안 통합해야

목포시와 신안군의 행정 통합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김종식 목포시장과 박우량 신안 군수도 양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해서는 통합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주 목포해양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신안·목포 통합 토론회'에서 양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시장은 "몸집이 커지면 거기에 맞게 새로운 옷을 맞춰 입어야 하고, 큰 집을 지으려면 큰 집터가 필요하다"면서 행정의 광역화는 시대적 소명이라고 말했다. 박 군수도 "신안군과 목포시는 행정구역상 분리돼 있지만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묶여 있다"면서 양 지역의 역사적 동질성에서 통합의 명분을 찾았다. 이들 단체장은 "천사대교 개통 이후 관광 분야가 활기를 띠는 등 서남권 도약의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다"며 이를 행정 통합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목포시 전체 인구의 약 60%는 신안군이 고향이거나 신안군에 연고를 두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목포에 집을 소유하고 있다. 또 신안군 공무원 800여 명 중 90%가 목포가 생활권이며, 신안군에서 생산되는 연간 농·수산업 소득 8000억 원의 소비처가 목포다. 이런 점에서 두 시군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따라서 이미 1994년 이후 여섯 차례 추진됐다가 무산된 목포·무안·신안 통합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우선 목포시와 신안군을 통합하는 방안부터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조상필 광주전남연구원 초빙연구위원도 "신안·목포가 통합되면 통합시 인구가 30만 명 이상으로 급성장하고 주민들의 교육·문화 시설 이용 및 각종 생활 여건이 편리해질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無等鼓

G선상의 아리아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1685~1750)는 38세 되던 1723년에 독일 라이프치히 성 토마스 교회의 '칸토르'(Kantor)로 고용된다. 교회에서 쓰이는 종교음악을 작곡하고 합창단을 지휘하는 일종의 음악감독이었다. 그는 이곳에서 타계할 때까지 종교 음악극인 '마태 수난곡' 등 많은 작품을 작곡한다. 그렇지만 바흐의 음악은 사후에 거의 묻히다시피 했다.

그의 '마태 수난곡' 역시 초연된 지 100여 년이 지난 후에야 멘델스존에 의해 재조명됐다. 총 네 곡으로 구성된 '관현악 모음곡'은 쾨텐 궁정 악장에서 라이프치히로 자리를 옮기던 1720년대에 작곡된 것으로 추정된다. 바흐는 라이프치히 커피하우스에서 열리는 콘서트에서 '관현안 모음곡' 등을 즐겨 연주했다고 한다.

모음곡 중에서 제3번은 서곡(Overture)과 아리아(Air), 가보트(Gavotte), 부레(Bourree), 지그(Gigue) 등 다섯 곡으로 이뤄져 있다.

특히 두 번째 곡인 '아리아'는 'G선상의 아리아'란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본래 관현악곡으로 작곡된 작품을 1871년에 독일 바이올리니스트 아우구스트 빌헬미가 바이올린 네 개의 현 중 음역이 가장 낮은 G현만으로 연주할 수 있게 편곡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유튜브에서 해당 작품을 찾아 들어보니 선율이 귀에 익숙하다. 영화, 드라마, 라디오 음악프로그램을 통해 접할 기회가 많았기 때문일 것이다. 음악평론가 진회숙은 클래식 대중서 '365클래식'에서 'G선상의 아리아'에 대해 '바이올린의 서정성을 충분히 살린 매우 아름다운 곡'이라고 설명한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영결식이 어제 엄수됐는데 서울 시립 교향악단이 추모곡으로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 제3번' 가운데 '아리아'를 연주했다.

고인을 기리는 '애도와 추모의 시간'은 짧았다. 급작스러운 그의 죽음 앞에 많은 사람들이 헌화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진실'을 밝힐 것을 거세게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단할 수 없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송기동 문화2부장 song@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전남본부	220-0642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